



대상  
로우태그 도입  
당·칼로리 확 줄었다  
L1



Life

세계 최대 암학회서  
K-항암신약  
경쟁력 알려  
L2



# 지친 맘 보듬는 따뜻한 손길... “포인트로 희망 적립해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ESG 경영시대 —

## 롯데멤버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부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웹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이나 포인트 기부 등이 새로운 기부 형태로 자리 잡았다.

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 e)’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부 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멤버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4300만 회원을 보유한 대표 멤버십 기업으로써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이 포인트를 적립·결제하는 것을 넘어 기부할 수 있도록 엘포인트 앱 내 관련 캠페인을 상시 운영하며 기부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는 중이다.



### ◆환아 어머니 건강 지킴이

롯데멤버스의 대표 기부 캠페인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진행 중인 ‘맘편한(mom): 포인트 맘케어’다. ‘포인트 맘케어’는 롯데그룹의 사회공헌활동 ‘맘편한’의 일환이며, 엘포인트모금을 통해 소아암 환자 어머니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국내 소아암 환자 수는 약 1만 6000명으로 추정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4~5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는 셈이다. 소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균 2~3년 동안 장기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환아를 포함한 가족들은 오랜 치료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롯데멤버스는 그 중에서도 특히 환아를 케어하는 어머니에게 집중해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을 기획했다. 소아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건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정작 환자맘들은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이에 롯데멤버스는 롯데의료재단,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손잡고 매년 2회씩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모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이며 이를 통해 총 460여 명의 소아암 환자 어머니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했다.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 기부금은 엘포인트 앱을 통해 모금된다. 회원이 직접 자신의 보유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앱 내 만보견기 미션을 달성하면 주어지는 10포인트를 기부하면 된다. 만보견기 기부금은 롯데멤버스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 선한 영향력 전파하는 기부 플랫폼 기부캠페인 ‘포인트 맘케어’ 운영 소아암 환자 어머니 건강검진 지원

### 사내 바자회 열어 수익금 전액 기부 소아암 환자 위한 선물 제작해 전달

### 가족친화제도로 일·가정 양립 실현 여가친화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도

### ◆임직원 함께 나누고, 물품 후원

롯데멤버스는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을 통해 엘포인트 회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도 소아암 환자 가족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내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 기금으로 전달했으며 임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올해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직원들이 급여 지급액에서 남는 우수리를 매월 기부할 수 있는 ‘급여우수리 나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미취학 소아암 환아를 위한 애착인형, 마스크 스트랩을 직접 만들어 선물할 수 있도록 나눔 키트도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롯데멤버스는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로부터 필요 물품을 매월 전달받아 후원하고 있다.

소아암 환아를 위한 캠페인 외에도 롯데멤버스는 매달 새로운 기부처와 기부 대상을 공개하는 월간 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엘포인트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부 동참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 지난해에는 ▲입양아 가정 및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후원 ▲수용자 자녀 대상 멘토링 ▲취약계층 난방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부 캠페인을 오픈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극심한 산불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 ◆온정 넘치는 가족 같은 기업문화

롯데멤버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로 임직원들에게도 온정을 전하고 있다. 특히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대디를 위해 법정 기준에 상향하는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힘쓰고 있다. 육아휴직 기준을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했으며 육아휴직 플러스 제도로 법정기간 종료 후에도 최대 연속 1년까지 추가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근로자에게 주 2회 재택근무를 제공하며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 ‘패밀리데이’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유연근무제 ▲분 단위 시차 출퇴근제 ▲PC-OFF 시스템 ▲휴가자 가승인제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롯데멤버스는 지난해 여가친화 우수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으며 관련 인증을 꾸준히 획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공동 우승 /사진 뉴시스  
▲LAL, 미네소타에 밀려 PO 탈락 위기...르브론·돈치치 듀오도 역부족

▲주춤한 선두 LG-뒤쫓는 한화 맞대결...10개 구단 9연전 돌입  
▲김광현 3경기 연속 패·양현종 6경기 무승...1988년생 동갑내기 수난

▲김효주, LPGA 세브론 챔피언십 연장 끝 준우승...사이고는 첫 우승  
▲노백, 그리핀과 PGA 취리히 클래식 제패...100번째 대회 만에 첫 우승